



구청 수행 우선 ‘구민 안전’ 에 둔다

구청장 특별지시, 주요 사업 및 축제·행사 시 ‘안전’ 우선 챙기기

“안전점검이 관행이 아닌 특별한 일상이 되도록 하라.”

서구는 민선 7기 4년 동안 구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한 달간 전 부서에서는 올 하반기 추진 업무에 대해 대대적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구는 그동안 주요 사업이나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 및 행사 시 사전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25일 제5회 송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해상다이빙경기 도중 참가선수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한 서구 만들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구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서구는 이와 관련해 우선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재해 등 각종 사고 위험지에 대한 환경감찰을 주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약심사나 시공감사 시 현장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축제 및 행사 시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을 비롯해 화재 진압장비(소화기) 배치 등 화재예방 조치, 전선 노출 등 전기 관리상태, 소방구급 요원 및 장비 현황, 행사 안전요원 배치 여부, 유사 시 방문객 대피 대책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최근 개최된 구덕골문화예술제를 비롯해 서구일자리박람회, 서구복지박

람회, 그린스타트 생명문화제, 부산 고등어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도 사전에 유관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됐다.

아울러 주요 구 공사(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모든 공사에 대해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장점검 및 감독 강화, 공사장 안전관리 규정 및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도해수욕장 일원,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 공원 등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평상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해상다이빙경기 도중 참가선수의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내년부터 송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에서 이 종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상다이빙대는 1960~70년대 송도해수욕장을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었던 4대 명물 가운데 하나로 구민과 전국 수많은 관광객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자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복원된 전국 유일의 해상다이빙시설인 점을 감안해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피서객들을 위한 레저용으로만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해상다이빙대 운영 시에는 수심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수심봉을 설치해 누구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음주여부 체크와 함께 다리부터 입수하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240-4013)



“제가 잡았어요!”

제11회 부산고등어축제가 지난 10월 19일부터 사흘간 송도해수욕장과 부산공동어시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에는 연인원 47만 명이 몰렸는데 킬러콘텐츠인 ‘맨손 고등어 잡기’는 매회 매진되는 등 단연 인기였다(사진은 ‘맨손으로 고등어 잡기’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다양한 표정). ▶관련기사 5면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신속 완료

피해액 5억2천여만 원... “사전점검·예방조치로 최소화”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지난 10월 6일 부산을 통과하면서 서구에서는 강풍과 집중호우로 공공 및 사유 시설을 합쳐 총 5억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직원들의 신속한 복구작업으로 대부분 원상회복됐다.

서구에서는 이날 오전 1시 태풍주의보, 오전 2시30분 태풍경보가 잇달아 발효됐는데 순간최대풍속 33m/s, 이틀간 누적강우량 118mm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송도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거센 파도로 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가 수변공원을 넘어 해안도로까지 밀려오면서 상당부분 유실



사진은 서구 직원들이 태풍 피해를 입은 송도해수욕장에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모습.

됐으며, 백사장에는 파도에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쌓였다. 또 해안가 가로등주 13본 및 경관조

명 10개가 일부 훼손됐으며 월파로 인해 서방파제 일원의 안전펜스 40m와 콘크리트 안벽 45m가 파손되는

가 하면 등대로의 보도블록 및 탄성 포장의 뜯겨나가고 구름산책로와 해상다이빙대도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등 공공시설 17개소에서 각종 피해가 나타났다.

사유시설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초장동에서는 강풍으로 빈집이 전파되고 패널지붕이 이웃집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아미동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주택이 외벽 균열과 외장재 탈락으로 붕괴 위험에 놓이기도 했다. 또 교회 종탑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통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도 잇달았는데 피해액이 총 81건, 5천 6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구는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곧바로 피해조사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차 피해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날인 10월 7일까지 직원 173명 등 189명의 인력과 덤프 트럭·포크레인·지게차·크레인 등 각종 장비를 투입해 응급 복구작업에 나섰다. 직원들은 이날 휴일도 잇은 채 송도해수욕장 일원과 송도해수피아~남항어촌계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해안가와 도로, 인도에 쌓인 15톤 트럭 12대 분량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 깨진 보도블록을 수거하는 등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여타 시설물도 시설관리소 관 부서별로 신속하게 응급복구작업을 실시했으며, 복원공사가 필요한 곳은 조기 발주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해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다.

서구 관계자는 “태풍 복상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판단회의와 긴급대책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재난취약지 및 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취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로 적극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안전총괄과 240-4652)

태풍 전파 빈집, 先철거 後행정조치

“방치하면 구민 안전 위협... 선제 대응으로 사고 예방”

서구가 태풍 ‘콩레이’의 내습으로 인한 붕괴위험 주택 2곳에 대해 선(先) 철거, 후(後) 행정조치의 선제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주택들은 초장동과 아미동에 위치한 1층 집으로 모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다.

이번 태풍으로 빈집이었던 초장동 주택은 건물이 전파됐고 패널지붕 한쪽이 완전히 뜯겨 이웃집을 덮쳤는데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으나 기름보일러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아미동 주택의 경우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외장재가 떨어져 나갔을 뿐 아니라 붕괴 위험이 높아 철거가 시급한 상태이다.

서구는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우선 이웃집으로 날아간 초장동 주택의 패널지붕을 신속하게 제거했으며, 건

축기술사 등 전문가 2명을 투입해 2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초장동 주택은 지난 10월 18일 직권으로 철거조치했다. 개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 강제철거 시 소유자의 철거동의가 필요한 데 초장동 주택은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공고 등 행정절차 완료까지

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돼 혹시 모를 사고 예방과 이웃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직권으로라도 신속한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 붕괴위험이 있는 아미동 주택은 거주자에 대해 대피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유자를 설득해 10월 말까지 건물철거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문의 건축과 240-4611)



사진은 태풍으로 지붕패널이 날아간 초장동 한 주택의 철거 전(사진 왼쪽)과 후의 모습.

서구신문

1997년 1월 23일 창간

발행 부산광역시 서구 인쇄 부산일보사

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20(토성동4가)

대표전화 051-240-4000

홈페이지 www.bsseogu.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bsseogu

블로그 blog.naver.com/seogu00

트위터 twitter.com/bsseogu

편집 서구 문화관광과

전화 051-240-4074 팩스 051-240-4069

서구신문 홈페이지 news.bsseogu.go.kr

서구 모바일홈페이지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면 서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해 민원안내, 생활정보, 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157·158회 서구미래아카데미

■ 참가대상 : 누구나

■ 문의 : 총무과 240-4041~2

‘꿈·한·살-꿈꾸는 그대들을 위한 한풀이 살롱’



정태성

- 일시 : 11월 8일(목) 16:00~17:30
 - 장소 :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4층)
 - 강사 : 정태성(서비스경영컨설팅코리아 대표이사)
- ▷약력 : 비전택시대학 총장
서울개인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저서 : 『어른수업』 등



정진우

‘올바른 생활 응급처치’

- 일시 : 11월 22일(목) 16:00~17:30
 - 장소 :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4층)
 - 강사 : 정진우(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 ▷약력 : 동아대 의과대학 응급의학 교실 부교수
대한응급의학회 이사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사적 지정

〈현 부민동 임시수도기념관〉

근현대 유산으로 부산 최초... 세계유산 등재에도 '긍정'

한국전쟁 기간 국정 운영의 중심이었던 부민동 소재 임시수도 대통령관저(현 임시수도기념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史蹟)으로 지정됐다.

부산시가 신청한 사적 지정 요청안이 지난 8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데 이어 30일간의 의견청취기간을 거쳐 10월 13일 확정 고시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한국전쟁 기간 중 피란수도인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곳으로, 국방·정치·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됐던 역사적 현장으로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사적 지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부산에서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금정산성, 동래패총, 동삼동패총,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 등 5곳으로 이번 사적 지정으로 서구도 사적을 보유한 지자체가 됐다. 특히 기존 사적 5곳이 모두 고대와 중세 유적이던데 비해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근현대 유산으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정돼 의미가 더욱 크며, 현재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부지 4천774.2㎡, 연면적 473.7㎡ 규모로 1926년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로 준공됐으며, 한국전쟁 기간 두 차례(1950년 8월 18일~10월 27일, 1951년 1월 3일~1953년 8월 15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 부부의 관저로 사용됐다. 또 전쟁이 끝난 뒤 다시 경남도지사 관사로 쓰이다가 1983년 부산시가 인수해 1984년 6월 임시수도기념관으로 개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당시 국방 22건, 정치 10건, 외교 13건 등의 국정이 수행된 곳이다. 유엔군 총사령관인 매슈 리트지웨이 장군 접견, 장택상 신임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 등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져 우리 근현대사의 생생한 현장 가운데 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1920년대 건립된 도지사 관사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관사로 건축 사료로서도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의 임시수도기념관 231-6340)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연혁

- 1925. 4. 17. 경상남도 청사 진주에서 부산 이전
- 1926. 8. 10.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 준공



- 1950. 8. 18. 1차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10. 27.)
- 1951. 1. 3. 2차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1953. 8. 15.)



- 1953. 8. 15.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
- 1983. 7. 1. 경상남도 청사 부산에서 창원 이전
- 1983. 9. 30.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 부산시 인수
- 1984. 6. 25. 임시수도기념관 개관
- 1984. 7. 3. 부산시립박물관으로 관리 이관



- 2000. 4. 임시수도기념관 복원공사(~2001. 11.)
- 2002. 5. 6.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3호 지정
- 2017. 12. 15. 피란수도 부산유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잠정목록 등재 조건부 통과

지진·화재 복합재난 대비 안전부산훈련

26일 서구청, 30일 송도초등학교

2018년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이 오는 10월 26일과 30일 서구청과 송도초등학교에서 차례로 실시된다.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안전한국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지자체 단위로 한 차례 더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경주·포항 지진, 최근 인도네시아 강진과 관련해 경주시 남남서쪽 8 km 지점에서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송도초등학교에 심한 건물 진동과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상해 진행된다.

훈련은 26일에는 오후 2시 구청 재난안전상

황실에서 토론회반훈련으로, 30일에는 오후 1시 송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행기반훈련을 이루어지는데 서구 9개 부서를 비롯해 서부경찰서, 중부소방서, 한전 중부산지점, KT 서부산지사 등 유관기관과 서구자율방재단, 서구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서구지회 등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실행기반훈련에는 송도초등학교 4~6학년 200여 명이 참가해 지진발생 시 신속한 대피훈련과 함께 대형화재 상황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운영 체계를 숙달하게 된다.

(문의 안전총괄과 240-4642)

지자체 합동평가 장려상 수상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 원 지원

서구가 2018년 전국 시·도 합동평가(2017년 실적) 결과에 따른 부산시의 16개 구·군 합동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 원을 받았다.

이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지난해 각 지자체가 추진한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 212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서구는 일반행정, 지역경제, 지역개발, 규제개혁 등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차지함으로써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문의 기획감사실 240-4015)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단속 대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단속 기간 : 연중
※ 야간 집중단속 : 2018. 10. 11.(목)~10. 31.(수)
- 단속 장소 : 부산광역시 전역
- 문의 : 세무과(240-4245)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 대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 납부 의무자 : 2018.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 기간 : 2017. 8. 1.~2018. 7. 31
- 납부 기간 : 2018. 10. 16.(화)~10. 31.(수)
- 납부 방법 :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부산시내 새마을금고
-인터넷 전자납부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화(ARS)납부(☎1544-1414), 가상계좌이체 등
- 문의 : 교통행정과(240-4575, 4578)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 서비스 내용 : 조상(부모 등)의 갑작스런 사고(사망 등)로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토지 정보 제공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
※ 1960년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에 한함. 법정 대리인 및 위임을 받은 수임인
- 신청 방법 : 토지관리과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위임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문의 : 토지관리과(240-4774)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제23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사진 왼쪽)과 이석희 의장 모습.

조례안 12건·행감계획서 심의 의결

제239회 서구의회 임시회

서구의회(의장 이석희)는 제239회 임시회를 지난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의원들은 임시회 휴회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으며, 11월 말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각종 사업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석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지난 1년간의 구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구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배은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허승만)에서 제출한 9건의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상조)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심의 의결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림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 내용



송상조 의원



이정향 의원



허승만 의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대표발의)=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 직무대행 규정을 기존 연장자선임에서 최다선의원선임으로, 최다선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선임으로 개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상조 의원 대표발의)=「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해 현행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안(송상조 의원 대표발의)=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로서,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향 의원 대표발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안(이정향 의원 대표발의)=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대표발의)=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만 의원 대표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운영세칙)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

제238회 정례회 구정질문 요지



사진은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송상조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송상조 의원 :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가?

▲김성호 부구청장 :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 조성사업은 송도해상케이블카,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해 관광벨트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구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선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

-송상조 의원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서구청사 부지가 선정됐는데 앞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성호 부구청장 : 서구청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근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의견이 제시됐다. 첫째, 사업 시행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둘째, 민간사업 방식인 초고층 개발 등은 공공성이 결여됐다. 셋째, 구청사 신축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할 것이다.

47만 인파... “고등어가 맛있다! 축제가 즐겁다!”

■ 제11회 부산고등어축제

국민생선 고등어를 특화한 국내 최대 수산물축제인 제11회 부산고등어축제가 연인원 47만 명이 몰리는 등 대성황을 이루며 지난 10월 21일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사흘간 송도해수욕장과 부산공동어시장 일원에서 개최됐는데 무엇보다도 자녀를 동반한 30~40대 부부 등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 축제가 한층 젊어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는 올해 가족 방문객들이 함께 추억을 쌓고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킬러콘텐츠인 ‘맨손으로 고등어 잡기’의 경우 올해에는 꼬리부분에 금테를 두른 황금고등어를 투입하는 등 흥미요소를 추가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으며, ‘고등어 화덕구이 체험’과 연계함으로써 온 가족들이 잡은 고등어를 함께 구워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고등어맨 종이배 경주대회’, ‘카약 타고 고등어 찾기’, ‘고등어 썰신을 찾아라’, ‘고등어 굽신을 찾아라’, ‘고등어 런닝맨’, ‘고짱을 잡아라’ 등도 아빠·엄마와 자녀가 주를 이루었다. 축하행사도 기존의 트로트 위주에서 벗어나 레이저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공연 등이 마련돼 젊은층의 발길을 축제장으로 이끌었다.

또 가족 방문객 급증으로 40여 개의 체험부스도 더욱 인기를 끌었는데 고등어캐릭터 체험 등 일부 부스는 행사 기간 내내 긴 줄이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국내 최대 수산물축제답게 고등어 먹거리들도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마련돼 입맛을 사로잡았다. 고등어 먹거리장터는 맛있는 제철 국산 고등어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특히 대형선망수협 직영부스는 고등어화덕



- 1 고짱을 잡아라
- 2 고등어 먹거리장터
- 3 고등어맨 종이배 경주대회
- 4 부산공동어시장 현장체험 (경매체험)
- 5 남항대교 걷기대회

구이와 고등어회를 맛보려는 행렬이 수십 미터씩 이어졌으며, 고등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수산물기업홍보관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축제가 고등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부산고등어축제의 특별행사인 남항대교 걷기대

회에는 무려 2만여 명이 참가해 걷기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날 완주자에게는 김치냉장고, 자전거 100대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됐는데 번호가 불릴 때마다 여기저기서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4062)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호평... 구민 소통·화합 한마당

■ 제20회 구덕골문화예술제

제20회 구덕골문화예술제가 지난 10월 9일 구덕민속예술관에서 ‘풍성한 가을, 문화와 사람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에는 행사 준비에 따른 단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해 열렸는데 태풍 ‘콩레이’의 북상으로 행사 직전 날짜와 장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2천여 명의 구민과 관광객이 참가해 20회째인 축제의 저력을 과시했다. 또 장소가 협소하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으나 원형의 구덕민속예술관 앞마당과 스탠드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여 행사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행사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팝페라, 바다새, 비보이 공연이 잇달아 펼쳐졌으며 특히 우리 구 무형문화재인 부산고분도리걸립 연희와 올해 현인가요제 대상 수상자인 최대성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사진은 부산고분도리걸립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구덕골문화예술제 행사장(사진 왼쪽)과 주민자치회·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

13개 동 대항으로 펼쳐진 주민자치회·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는 주민들이 갈고닦은 실력과 숨은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자리로 구민과 단체원,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이밖에 15개 부스가 참여하는 체험행사와 전시·홍보 행사도 마련돼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문의 총무과 240-4122)

서구칼럼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사적 지정의 의미



김기수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3가 22번지에 위치한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1926년 9월 경상남도 도지사관사로 준공돼 현재 부산시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당시 관사건물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붕은 모임지붕과 박공지붕, 내부는 서양식 주택과 일본식 주택을 절충한 2층

규모의 벽돌 건물이다. 6.25전쟁 당시 2차에 걸쳐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됐던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지난 3월 23일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가문화재 사적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임시관저 주변에서 일어난 대통령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적 지정이 보류 됐는데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의 보완연구를 통해 8월 28일 재심의에서 최종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부산에는 금정산성, 동래패총, 동삼동패총, 북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 등 총 5개의 전통유산만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근대유산 최초로 임시수도 대통령관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는

많은 근대기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부산시와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역사문화유산은 국가사적 지정여부를 떠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즉 해당 유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부심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유산은 지역주민과 함께 역경을 딛고 견뎌온 증거이자 희생을 보여주는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 뉴욕, 파리, 상해, 오사카, 홍콩 등 세계 도시들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건축물을 이용해 관광자원화 하는 등 활성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세계의 도시들이 역사문화유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을 이용해 지역산업 활성화 및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도시

들은 없는 역사문화자원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산 서구의 경우 이미 많은 근대 역사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다.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와 정부청사 인근은 전쟁 당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정책상 긴박했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던 현장으로 정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외국 대사관, 학교시설, 병원시설 등의 시설들이 위치해 있었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핵심시설 중 하나인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반경 2~3킬로미터 이내에 이들 시설이 밀집해 있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국가사적 지정은 향후 유네스코 유산등재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지역발전

지방대학 위기, 민관 합심 돌파해야

최근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대학은 당장 학생 정원을 감축해야 하니 등록금 감소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걱정으로 전전긍긍한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70개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소재 대학은 무풍지대이다. 지방대학 중 자율개선대학 탈락 비율은 35%에 달하는 데 수도권 대학은 18%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전문대학 위주이니 수도권 4년제 대학은 어지간한 수준이면 학교 운영에 아무런 근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이다. 수도권 대학 집중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씩씩한 현상이다. 과거 부산에는 나름 명문으로 이름난 대학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입시생이 수도권 대학을 과도하게 선호해 부산지역 대학을 좋지 못한 대학 또는 성적이 다소 부족한 사람이 가는 대학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국립대도 포함된다. 심지어 중장년층에게는 생소한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을 부산지역 대학보다 선호하는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부산지역 대학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이런 식으로 부산지역 대학의 위기에 손 놓고 있으면 결국 부산지역 전체의 위기로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민관이 합심해서 돌파해야 한다. 해외의 우수한 대학을 살펴보면 해당 대학의 학생이 아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도 대학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지역사회와 괴리된 대학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부산에도 지금은 다소 어렵지만, 과거에는 좋았던 대학이 많다. 우리 민관이 손을 잡고 대학을 다시 부흥시킬 방안을 생각하고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민관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서 대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입 정원이 감소하고 대학구조조정이 벌어지는 지금 민관이 합심해서 잘 준비한다면 부산지역 대학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시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소한 것이라도 지역 대학을 살리는 것에 민관이 함께 나설 필요가 있다.



이정수
서대신1동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송도

바다와 하늘이 모두 파란 가을, 딸과 함께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한 바퀴 했다. “해안선이 지금은 C자 모양이지만 옛날엔 3자 모양이었다. 1송도와 2송도로 나뉘어 있었고 가운데 큰 바위들이 솟아있었어.” 딸은 상상력을 동원해 나눠졌던 모래사장을 그리는 듯 했다. “놀이선이 있었다. 사공이 노를 저어주고 손님들은 배에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 배가 바다 한 가운데쯤 가면, 백열등을 환하게 밝힌 배가 다가와 놀이선에 붙는데, 온갖 맛있는 것을 파는 배였어. 곳곳에 놀이선이 떠 있는 밤바다는 검은 응단에 보석이 박힌 듯 환상적이었지.” 듣기만 해도 특별한 배가 운행되지 않는 점을 딸은 의아해 했다. “지금 해상케이블카는 한 팀당 한 대씩 나누어 탑승하지만, 옛날

에는 적정인원들이 함께 탔어, 버스 같은 형태였지.” 마침 옛날 케이블카 모형이 있어 딸은 쉽게 내 말을 이해했다. “또 구름다리도 있었어. 출렁이는 다리 밑 바다 속엔 홍합이랑 고둥이 파래랑 엉겨 막게 살랑였지, 건너가면 작은 섬에 횃집도 있었다.” 구름다리는 복원 예정이라 건너볼 수 있겠다며 딸은 신나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송도는 놀랄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아마도 곧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 명단에 오르지 않을까 싶다.



정영란
임남동

독자투고 받습니다

서구신문은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각종 제언이나 시, 수필, 감상문, 편지,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청 문화관광과 서구신문 담당자 앞 prepine1@korea.kr • 문의 : 문화관광과 240-4074

“ ‘장기려 정신’ 실천으로 지역·주민에 기여”

이슈 & 사람

최영식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개소 40주년 암센터 전국 최고 수준
변화·도약으로 지속가능한 병원 구현
장기려路, 장기려 스토리텔링화 기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지난 7월 12일 제9대 최영식 병원장(54) 취임 이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도움닫기 달림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의료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와 도약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영식 병원장의 슬로건인 ‘도약의 간절함, 그 시작은 변화다’는 그래서 울림이 더 크다. 이제 취임 100일을 맞은 최 병원장을 만나 변화와 도약을 위한 구상을 들어보았다.

고신대의 2기인 최 병원장은 그동안 교육연구부장, 진료부장, 대외협력실장, 기획실장, 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탁월한 경영관리능력을 인정받았다. 또 내분비학과 교수로 1996년 대한내분비학회지에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결절의 세침흡인세포검사법을 국내 최초로 발표하는 등 국내외에서 세침흡인 갑상선암 진단의 최고 권위자로 명성을 얻고 있다.

– 변화와 도약을 강조하셨다. 어떤 구상이신지?

▲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진료 프로세스의 혁신이라든지 고객서비스 확충 등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병원의 강점인 암치료센터 외에 비만대사수술센터, 수면장애클리닉, 심뇌혈관센터, 간이식, 전인통합치유

센터 등 센터중심의 진료특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임상시험센터를 확충하고 국책과제를 수행해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과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중기전략으로 송도캠퍼스 내 건물 신축과 분원 건립도 염두에 두고 있다.

– 고신대복음병원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 우리 병원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암 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때마침 올해는 우리 병원 암센터 개소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독보적인 역사를 자랑하는 암센터이고, 전국적으로도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암센터를 개소했다. 그만큼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암 치료에 있어서 수술과 항암치료 외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방사선 치료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지역 의료관광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데.

▲ 의료관광이라는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 우리 병원은 부산에서는 가장 빠르게 움직여 러시아지역 환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 같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했을 뿐 아니라 중·단기 의사 연수를 유치해 구체적

인 의료협력도 있었다. 러시아 코디네이터 상주뿐 아니라 전용라운지 및 국제진료센터 개소 등을 통해 러시아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몽골-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의료 실크로드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가 설립한 병원이라 그런지 사회공헌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 같다.

▲ 맞다. 우리 병원과 다른 병원과의 차이점은 기독교병원으로서 우수한 의료자원으로 구제와 복음 전파를 통해 이웃사랑을 나누는데 있다. 현재 필리핀·페루·베트남·카자흐스탄·몽골·파키스탄·남아공 등 해외 선교 거점병원을 기반으로 체계화된 고품격 의료선교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국내 의료봉사도 활발하다. 우리 병원은 차상위계층 비율이 타 병원에 비해서 현저히 높는데 이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과거 부산해송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무료 심장검진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부산지사와는 5년 넘게 분기마다 부산·경남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진료를 펼치고 있다.

– 장 박사님을 기리는 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알로이시오기념병원 앞에서 송도탑스빌 앞까지 행정도로명인 감천로 외에 장기려 박사의 이름을 딴 ‘장기려로(路)’로 명명돼 있다. 서구가 박사님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한 것이다. 장기려로 일대에 박사님을 스토리텔링화한 콘텐츠를 구현해 ‘장기려정신’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서구와 협의해 나가겠다.

–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 올해로 병원 개원 67주년이다. 부산지역 병원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그만큼 우리 병원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벗이자 든든한 건강지킴이였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친근한 이웃이 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 무엇을 신고하죠?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 등 6개 분야, 284개 법률 위반 행위

■ 어디에 신고하죠?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정부 부처, 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 의원

※ 20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 신고 상담 국민 없이 110 또는 1398

■ 공익신고자 보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밀보장, 신분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 보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원

인도네시아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https://irts.molit.go.kr 부동산거래의 네비게이션..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거래비용 500만원 절감!!

✓ 실거래신고 자동처리!!
✓ 확정일자도 자동부여!!

국토교통부, 세계속의 경기도, 한국광정원

친절한 전자계약도우미(콜센터) (02)2187-4173, 4174

장기소액 연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신청 대상 2017. 10. 31 기준 원금 1천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등 국내 금융회사 장기소액 연체자
- 지원 내용 상환능력심사 및 3년간 재산조사 후 채권소각
- 2차 신청기간 2018. 9. 3. ~ 2019. 2. 28. (6개월)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화 상담 ☎1588-3570 또는 ☎1397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구 관광, 모바일로 스마트하게!

11월부터 모바일 스탬프투어... 외지 관광객엔 선물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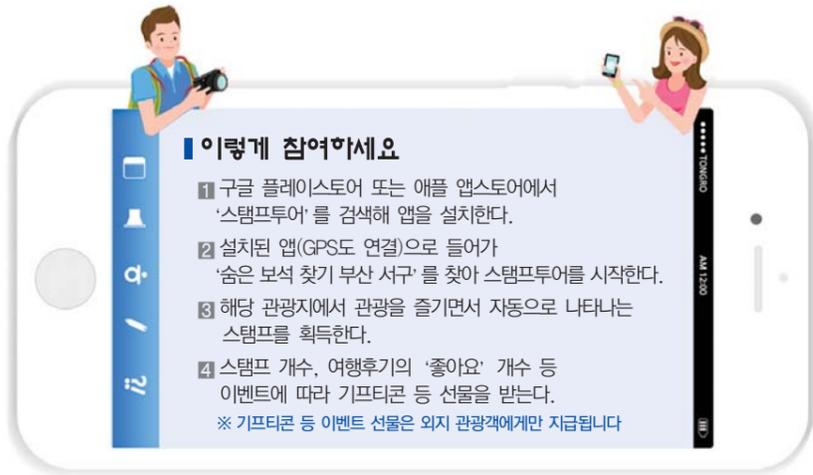
“핫 플레이스 서구 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로 스마트하게 즐기자.”

서구는 구름산책로, 해상케이블카 등 특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구 전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실시한다.

모바일 스탬프투어란 관광지 방문인증 스탬프를 종이카 아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받으면서 관광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하고 편리하게 스탬프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데 관광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맛집, 숙박, 카페 등 관련 정보까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여행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준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대상지는 구덕문화공원, 부



이렇게 참여하세요

-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를 검색해 앱을 설치한다.
- 2 설치된 앱(GPS도 연결)으로 들어가 '숨은 보석 찾기 부산 서구'를 찾아 스탬프투어를 시작한다.
- 3 해당 관광지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스탬프를 획득한다.
- 4 스탬프 개수, 여행후기의 '좋아요' 개수 등 이벤트에 따라 기프티콘 등 선물을 받는다.
※ 기프티콘 등 이벤트 선물은 외지 관광객에게만 지급됩니다

산전통문화체험관, 구덕수원지, 대신공원, 닥밭골 행복마을, 임시수도기념관, 동아대석당박물관, 천마산조각공원,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최민식갤러리, 천마산하늘산책로, 누리바라기전망대, 충무동 새벽시장, 이태석 신부 생가, 송도해안산책로, 송도구름산책로, 송도해상케이블카, 백년송도골목길, 암남공원 등 20개소로 서구 관광명소를 총망라하고 있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를 검색해

앱을 설치한 뒤 '숨은 보석 찾기 부산 서구'를 찾아 들어가 해당 관광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스탬프를 획득하면 된다.

서구는 모바일 스탬프투어가 외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매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스탬프 5개를 모은 20명에게는 5천 원권(스탬프 5개), 스탬프 10개를 모은 5명에게는 1만 원권(스탬프 10개), 그리고 여행후기의 '좋아요' 개수 상위 10명에게는 5천 원권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여행주간(10. 20.~11. 4.)이나 서구 축제 및 행사 시 여행후기를 작성한 뒤 SNS에 '공유하기'를 한 참가자 가운데 'SNS홍보왕'을 선정해 구어(區魚)인 고등어를 모티브로 한 지역 특화상품 '고등어빵'을 지급한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에는 송도해수욕장 외에도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정부청사와 대통령관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천마산하늘산책로, 구덕문화공원 등 관광명소가 너무도 많은데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점이 늘 아쉬웠다. 모바일 스탬프투어가 지역명소를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4081)

제5회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10월 30일 구청 다목적홀

제5회 서구 약자지결 평생학습 성과공유회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신관 다목적홀 및 로비에서 '사람과 사회를 잇는 평생학습-생애진로 꿈길학교'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민 및 동아리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동아리 '7080휘파람'과 마을 학습공동체 '아미골 행복밥상'의 성과발표, 창작인형극 공연(서·동·요), 하모니카 합주(미리내 하모니카 공연단), 우쿨렐레 연주(하와이우쿨스) 등이 펼쳐진다. 또 '삶과 얽 모두의 평생학습' 전하영 대표가 '지역사회 연계 평생학습 활동으로 생애진로 찾기'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특강을 실시하며, 학습동아리 무료 체험부스 운영, 우수동아리 작품전시회, 성인문해교실 시화작품전, 전통 다과 및 차 시식회 등 부대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 행사는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총무과 240-4044)



공공도서관이 추천하는 10월의 책

문학

박완서의 말

(박완서, 마음산책)



1990년대에 이루어진 대담들을 정리했다는 것과, 작가의 만평이 편집했다는 점에서 박완서의 여러 인터뷰집들과 구별된다. 90년대는 박완서의 소설이 독자들과 평단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던 시기이며, 작가 이력의 전성기였다.

비문학

열두 발자국

(정재승, 어크로스)



뇌 과학자인 KAIST 정재승 교수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각종 강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다.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그것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관점들을 통해 인간을 다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어린이

지느러미 달린 책

(강기원, 문학동네)



바다엔 지느러미 달린 책이 있고, 하늘엔 구름의 그림책이 펼쳐져 있고 사막엔 바람과 모래의 책들이 널려있는 세상을 탐색한다. 시인의 호기심천국 동시나라는 가웃 거릴수록 더 많은 동심이 보인다.



알짜 강좌, 우리 함께 배우요!

● 구민 정보화교육(11~12월)

서구 전산교육장(본관 1층) ☎240-4301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공휴일 제외)	모집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인터넷 활용 및 민원24 활용	11. 5.~11. 16. 10:00~12:00	만 59세 이하 구민	10. 8.~10. 26.	▷전화 : 240-4301 ▷인터넷 : bsseogu.go.kr ※ 통합예약 ※ 대상자 선정 시 교육 3~4일 전 개별 연락(문자)
포토스케이프 기초 및 디지털사진 편집	11. 5.~11. 16. 13:00~15:00			
컴퓨터 기초 및 컴퓨터 활용	11. 5.~11. 16. 15:30~17:30			
엑셀 기초 및 가계부 만들기	12. 3.~12. 14. 10:00~12:00	만 60세 이상 어르신	11. 5.~11. 23.	
컴퓨터 기초 및 컴퓨터 활용	12. 3.~12. 14. 13:00~15:00	만 59세 이하 구민		
한글문서 기초 및 예쁜 문서 만들기	12. 3.~12. 14. 15:30~17:30			

● 서구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서구청소년문화의집 ☎257-9162~4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모집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별하'	월~금 17:00~21:00	중등 1~2학년 선착순 40명 ※ 예비 중1 사전모집 중	수시	▷전화 : ☎257-9162~4 ▷홈페이지 : seogyouth.co.kr ※ 참가비 무료
토요썩썩프로그램	10~11월 토 14:00~16:00	청소년·지역주민 (프로그램별 상이)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석당박물관 ☎200-8499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모집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나는 토요일 체험학습	일찌구 쫓구나, 부산농악 (상모듈리기 체험)	11. 17.(토)	초등 1~3학년 (10:00~12:00) 초등 4~6학년 (14:00~16:00)	매월 마지막 월요일	석당박물관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링크 공지로 신청

※ 주관 기관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다문화가정 전통체험 행사



서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정옥)는 다문화여성들의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20일 부산전통문화체험관에서 명절음식 만들기, 차례 지내기 등 우리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가졌다.

서구 어린이집 한마음 가족운동회 개최



서구어린이집연합회(회장 류선옥)는 지난 10월 12일 구덕야영장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원아 및 가족 등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동대신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의



동대신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주봉현)는 지난 10월 8일 월례회의를 개최해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민관 협력사업 추진상황 보고,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

서대신3동, 모퉁이 어르신 함박웃음데이



서대신3동 새마을문고회(회장 신종연)는 경로의 달을 맞아 지난 10월 17일 모퉁이 어르신 등 60여 명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고 경로잔치 마련하는 등 함박웃음데이 행사를 가졌다.

아미동, 흠뻑어르신 이불빨래 봉사



아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지선)는 지난 10월 10일 마을배란다 골목빨래방에서 관내 흠뻑어르신들을 위한 뽕송뽕송 사랑의 빨래 봉사를 실시했다.

서구청 아침체조반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구청 광장에서 매일 활동하는 아침체조반 김숙기 강사와 수강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돕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은 성금 20만 원을 서구청에 기탁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 실시



서구는 대중교통이용의 날(매월 셋째 수요일)인 지난 9월 19일 서구모범운전자협의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근 구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동대신3동 바르게살기, 어르신 자장면데이



동대신3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회장 신문균)는 지난 10월 11일 관내 문화반점에서 어르신 80여 명을 초청해 '어르신 자장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대신동치킨나눔회 저소득가정 치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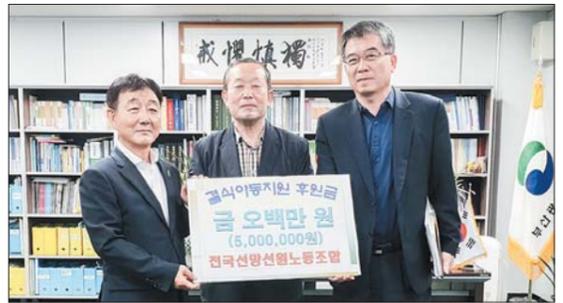
대신동치킨나눔회(BBQ치킨 대신점 임병울 등 6개 업체)는 지난 10월 10일 서대신4동 관내 저소득가정에 치킨 10마리(20만 원 상당)를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초장동, 어르신 문화탐방 나들이 실시



초장동 주민자치회(위원장 김철수)는 경로의 달을 맞아 지난 10월 11일 어르신 등 80명을 초청해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어르신 문화탐방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선망선원노조, 결식아동 후원금 기탁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위원장 황춘옥)은 서구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4일 (사)부산서구사랑의따뜻기봉사단후원회(이사장 김허남)에 후원금 5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동대신1동, 취약계층 '희망두드림' 실시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손외권)는 지난 9월 27일 전수조사에서 발굴한 1인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 복권위원회 후원으로 식품꾸러미를 전하는 '희망두드림' 사업을 실시했다.

서대신1동, 고독사 예방 원예교실 운영



서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만영)와 새마을문고회(회장 박경미)는 지난 10월 8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음소통 함께하는 원예교실'을 운영했다.

부민상생 행복마을 추진협, 선진지 견학



부민상생 행복마을 추진협의회(회장 배성분) 회원 등 30명은 지난 10월 11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 동구와 영도구에서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충무동, '활력증진 몸펴기 교실' 운영



충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활력증진 몸펴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홀몸어르신 가가호호 방문 복지서비스 연계



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보살폈다. 또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홀몸어르신이나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전한다.



얼마 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기초수급자인 어느 홀몸어르신(88)의 집이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이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보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칫 감전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집수리 및 도배·장판

허옥자 복지통장(사진)은 서대신3동에 살고 있는 홀몸어르신이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누구보다 반가운 얼굴이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넘게 11년간 복지통장을 맡아 관내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이웃을 발굴해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폭염 속에서도 굵은 땀방울을 쏟으며 산복도로 고지대를 오르내리면서 홀몸어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알려 주었다.

또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이나 복지제도 안내로 기초수급자 신청, 현물 지원, 도배·장판 등 도움이 절실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연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거나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면서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

허 통장의 이런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서대신3동은 '고독사 없는 따뜻한 한새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의 서대신3동 240-6487)

〈권창숙 명예기자〉

태풍 '콩레이' 피해이웃돕기 모금 안내

- 모금 기간 : 2018. 10. 8. ~ 10. 31.
- 기부 문의 : 전국재해구호협회 (☎1544-9595)

추석명절 이웃돕기 성금·성품 기탁자

- 서구 (사)부산서구사랑의따뜻기부사단후원회(이사장 김하남) 참기름·식용유 500세트·과일 65박스, 서구결식아동지원대책협의회(회장 이성만) 백미 10kg 100포·라면 100박스, ㈜경성리츠(대표 채창일) 은누리상품권 500만 원, 하나님의교회(목사 윤정룡) 주·부식세트 20박스, ㈜동원개발 라면 500박스, 대신동교회(목사 안흥국) 생필품세트 168박스, 서구부녀후원회(회장 김혜경) 여성 위생용품 60만 원, 서구여성자원봉사회(회장 이정숙) 참기름·김 세트 10세트, 서구청 아침제조반 20만 원
- 동대신1동 동대떡집(대표 오기태) 백미 10kg 50포, 미미떡집(대표 손외권) 백미 10kg 20포, 삼익열쇠(대표 이충열) 백미 10kg 10포, 락서암(주지사님 심향숙) 백미 10kg 10포, 구덕신협(이사장 조권규) 은누리상품권 100만 원, 금강(대표 심경란) 참기름세트 20병
- 동대신2동 함께하는나눔회(회장 주봉현) 백미 10kg 40포·라면 40박스, 대신공업사(대표 이영수) 백미 10kg 10포, 방위협의회(회장 전덕만) 은누리상품권 20만 원, 금강(대표 심경란) 참기름세트 20병, 구덕지구대 백미 20kg 2포·화장지 2세트·김 2박스
- 동대신3동 작은행복나눔회(회장 박대호) 백미 10kg 50포·참쌀 1kg 50포·조미김 50세트,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부산서구 지회(지회장 이영수) 백미 10kg 10포, 오성릉 10만 원
- 서대신1동 이웃사랑실천회(회장 송민영) 백미 10kg 40포, 금강치과(원장 강선인) 백미 10kg 17포, 이웃사랑실천회 사무국장 정종영 백미 10kg 20포, 주민자치위원(이영수) 백미 10kg 10포, 명가돼지국밥(대표 김정옥) 백미 20kg 5포, 새마을문고회(회장 박경미) 생필품 20박스
- 서대신3동 사랑의이웃사촌후원회(회장 김진학) 백미 10kg 70포, 이조숯갈비(대표 이수연) 50만 원,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서희분) 멸치 30박스, 새마을부녀회(회장 홍두엽) 생선 16박스
- 서대신4동 구덕골나눔이(회장 김차남) 은누리상품권 110만

- 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여성위원장 신용순 참기름 100병, 이명 기부자 백미 10kg 10포
- 부민동 (사)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철) 백미 10kg 100포, 부민노인복지관(관장 정수홍) 생필품 및 차례용품 10박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문성욱) 홍삼 50박스, 새마을문고회(회장 김현희) 문화상품권 45만 원
- 아미동 아미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고상열) 200만 원, 사랑의약국(대표 김갑열) 50만 원, 군밤아주머니 30만 원, 대성사(주지 무애스님) 30만 원, 원불교 토성교당(교무 안혜연) 10만 원, 아미파출소(소장 백규홍) 30만 원, (사)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철) 백미 10kg 200포, 1%사랑나눔회(회장 이일삼) 다복꾸러미 24박스, 산상교회(목사 김두호) 생필품 50박스·다복꾸러미 5박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위원장 전순자) 과일·라면 2세트,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의도) 과일 2박스, 방위협의회(회장 홍동호) 백미 20kg 2포, 새마을부녀회(회장 채영숙) 참기름 30병·라면 1박스·백미 10kg 1포, 재향군인회(회장 전암태) 과일·떡·음료 1세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일삼) 백미 20kg 4포, 통장협의회(회장 윤지선) 과일 2박스
- 초창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김철수) 20만 원, 남태현 10만 원, 우리네스크린골프(대표 배운숙) 백미 10kg 20포, (사)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철) 백미 10kg 100포, ㈜대원플러스건설(대표 최삼삼) 백미 10kg 22포, 수민상사(대표 이인호) 튀김가루 1kg 120개, 늘푸른행복동문이회(회장 남태현) 백미 10kg 38포
- 충무동 작은참여큰보람회(회장 김명학) 134만5천 원, 주민자치회(위원장 김미순) 30만 원,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차정식) 10만 원, 새마을협의회(회장 최덕원) 10만 원,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선주) 13만2천 원, 경남상회 백미 10kg 30포
- 남부민1동 행복나눔사랑회(회장 이영선) 은누리상품권 200만 원, 김해상회(대표 신명선) 은누리상품권 100만 원, 한진글로벌(대표 한영태) 백미 10kg 50포, 우리정비(대표 정재열) 추석 선

물세트 22박스, 평김해양(대표 정원길) 백미 10kg 20포

- 남부민2동 섣디사랑나눔회(회장 문덕일) 섣디화폐 15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효선) 백미 10kg 20포,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정상태)·새마을부녀회(회장 변애주) 생필품 30박스, 통장협의회(회장 박용대) 백미 10kg 20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문덕일) 백미 10kg 10포,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진갑) 백미 10kg 10포, 방위협의회(회장 최원주) 백미 10kg 10포, 톤즈행복마을운영위원회(위원장 박외숙) 백미 10kg 10포, 섣디행복마을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 백미 10kg 10포, 자유총연맹(회장 이상록) 백미 10kg 10포, 천해풍물단(대표 권영계) 백미 10kg 10포, 이효선(주민자치위원장) 백미 10kg 10포, 금호복국(대표 최원주) 백미 10kg 10포, 새마을식당(대표 장희조) 백미 10kg 5포, 박외숙(톤즈행복마을운영위원장) 백미 10kg 5포
- 암남동 작은나눔큰기쁨회(위원장 임완수) 은누리상품권 250만 원, 송도제일교회(담임목사 주준태) 백미 10kg 45포, 송도해상케이블카(대표 최효섭) 백미 10kg 60포

전국체전 참가 구청 롤러팀 격려 방문



서구는 지난 10월 13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전북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인라인롤러경기장을 방문해 부산대표로 롤러경기에 참가한 구청 롤러팀 소속 선수와 가족들을 격려했다. 서구 롤러팀은 이번 대회에 남자 일반부 트랙경기 개인전에서 허봉 선수가 1천m, 홍성준 선수가 E(제외경기) 1만5천m에서 각각 3위의 성적을 거뒀다.

남부민1동, 취약계층 가족사진 찍기 행사



남부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사홍)는 한부모 및 취약계층 가정의 추억 만들기 위해 9~10월 쌍둥이사진관 후원으로 '남일이네 행복찰칫 가족사진 찍기' 행사를 마련했다.

남부민2동, 주민 주도 복지박람회 개최



남부민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남부민2동과 암남동 주민, 기관·단체 등의 참여로 복지관련 체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서와 우리 마을에서 같이 살래요' 행사를 가졌다.

암남동 자율방재단, 태풍 피해복구 지원



암남동 자율방재단(단장 박영근)은 지난 10월 7일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발생한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응급복구 작업 지원활동을 펼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했다.

“40년 묵은 소원 드디어 풀었소”

동대신2동 초현경로당, 화장실 설치에 함박웃음

“몸도 편찮은데 이제 ‘볼일’ 보러 수시로 집에 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0년 묵은 우리 소원을 아래 속 시원히 풀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동대신2동 초현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생긴 지 43년 만에 설치된 화장실의 문을 연신 열어보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1975년 문을 연 초현경로당은 90여 명의 동네 어르신들이 그때 돈으로 몇 백 원, 몇 천 원씩 십

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1층 건물의 옥상에 지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무허가건물인데다 건물 구조와 공간 협소 등으로 화장실 설치의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때는 출입문 안쪽에 간이소변기를 달거나 들통을 갖다놓고 ‘작은일’이나마 해결하기도 했는데 건물 노후로 누수문제가 생기면서 1층 주민의 항의로 이마저 철거됐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볼일’이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집으로 되돌아가야 했는데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도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으며, 특히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피약별과 칼바람을 맞으며 집과 경로당을 오가는 고통을 견뎌야 했다.



사진은 화장실이 새로 설치된 초현경로당 앞에서 밝게 웃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서구는 지난해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경로당 내 화장실 설치문제를 검토해오다 최근 공간협소와 누수문제 등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해결한 데 이어 1층 주민을 끈질기게 설득해 마침내 40여 년 숙원을 해결했다.

초현경로당 회장인 이갑선 할머니(83)는 “40여년을 ‘볼일’이 있어도 그저 참고만 살았다. 오늘은 경로당이 생긴 이래 가장 기쁜 날이다.”라며 활짝 웃었다.

(문의 가족행복과 240-4374)

서구신문 무료 구독신청 ☎240-4074

등·하교 초등생 보행안전 위해 동신·부민초 앞 보도설치 공사

서구는 등·하교 초등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지난 9월 동신초등학교에 이어 10월 부민초등학교 앞 도로에 보도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도로로 이곳에는 길이 110m, 폭 1.1~1.5m의 보도가 설치되고 노면 포장, 차선도색, 난간설치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공사는 동신초등학교는 10월 말, 부민초등학교는 12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곳은 도로에 보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차량이 오는 차로를 통해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의 교통행정과 240-4556)

서구 - 동아대 학생 봉사동아리 협약

저소득가정 LED등 교체 봉사



사진은 서구와 동아대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의 업무 협약.

서구는 지난 10월 5일 동아대학교 학생 봉사동아리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 (회장 전규민, 전기공학과 2년)과 업무협약을 맺고 LED등 교체를 통한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에 나선다.

공과대학 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된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은 동아대학교 재능기부봉사단 산하의 학생 봉사동아리로 지난 2016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가정을 직접 방문해 LED등을 교체해주는 재능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은 이날 협약으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5~10세대를 선정해 LED등 교체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4331)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안내

- 상담 일시
11~12월 첫째주 화요일 15:00~16:30
- 상담 내용 : 국세관련 상담
- 상담 장소 : 구청 본관 1층 민원실

성명	마을세무사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강홍팔	서구 대영로8 ※ 서대신로타리 부산은행 건물	254-0814, 8
김정옥	서구 구덕로297(3층)	246-2271

■ 문의 : 세무과(240-4182)

애국가지도로 ‘독도는 우리 땅’ 알립니다

서예가 조용군 씨, 14년간 2만3,000장 그려 전국 배포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애국가 가사 208자로 한반도 지도를 만들어 전국 초·중·고 등에 배부하면서 14년간 ‘독도사랑’을 전해온 서예가 조용군 씨(83, 서대신3동)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 씨의 애국가지도 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퇴직 후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 다녔던 그는 우연히 한자로 만든 애국가지도 보게 됐는데 ‘東海水 白頭山···’으로 된 한자 애국가지도는 신기하긴 했으나 마음에는 와 닿지는 않았다. 그의 애국가지도는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가로 70cm, 세로 135cm 크기(보급용 35×70cm)의 애국가지도는 한반도 최북단 함경북도 온성에서 ‘동해물과’로 시작돼 최남단 제주도에서 ‘(보전) 하세’로 끝난다.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독도로 ‘대한으로의’ ‘한’으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독도는 한국땅’도 써넣었다.

조 씨가 이렇게 그린 애국가지도는 무려 2만3천여 장.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아껴 지필묵을 사고, 쉬지 않고 2~3시간을 그려야 지도 한 장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니 그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만하다. 그는 이 지도를 전국 초·중·고 학생들과 한국을 방문한 교포 학생, 외국인 유

학생 등에게 전하면서 나라사랑, 독도사랑을 일깨우고 있다. 애국가지도는 국립한글박물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청 등에도 기증됐다.

조 씨는 “국립해양수산학교를 졸업해 학생 때부터 독도에 관심이 많았다. 집집마다 독도가 정확하게 표기된 애국가지도가 있다면 누가 감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백내장 때문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붓을 들 힘이 남아있는 한 애국가지도 그리기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4074)



사진은 조용군 씨가 자신이 그린 애국가지도 들고 있는 모습.

충무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개관

지상 4층 고객쉼터·화장실 등 갖춰... “상권 활성화 기대”

고갈비거리가 조성된 충무동골목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돼 지난 10월 19일 개관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

고객지원센터는 충무대로 267번길 5에 국·시·구비 등 총 9억 원을 투입해 부지 96.30㎡, 연면적 225.39㎡의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됐는데 1층 고객쉼터와 화장실, 2층 상인회 사무실, 3층 회의실, 4층 펌프실 등이 들어섰다. 이 가운데 고객쉼터에는 의자와 탁자 등을 설치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충무동골목시장은 일반음식점과 식품판매 및 서비스 관련 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충무대로를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관공서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아 시장으로서 매우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가 다소 영세하고 시설이 노후한데다 고객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이 상권 활성화의



사진은 지난 10월 19일 문을 연 충무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모습.

결림돌로 지적돼 왔다.

서구는 올해 초 주차장 조성에 이어 이번에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충무동골목시장이 낡고 오래된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서민 먹거리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경제복지과 240-4474)

서대신3동 민·관·학 하나로 뭉쳤다

축제·행사 공동 개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협력”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창환)와 주민센터, 부경고등학교(교장 이상민)가 마을 및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민·관·학 협력은 지난 7월 제1기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출범이 기폭제가 됐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도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드물게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당시 부경고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출범할 수 있었다.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인 세대공감1080공유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센터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가 하면, 마을축제 및 행사의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도 열정을 보이고 있다.

3개 기관·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축제 및 행사를 공동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새마을 자랑하기 UCC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10월에는 한 달 동안 사람과 풍경이 어우러진 한새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새마을의 기억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오는 12월 21일에는 ‘한새마을에 다 행복하단 어울림의 웃을 입하다’라는 테마로 부경고 강당 및 교내에서 주민, 학생 등 전 동민이 참여하는 흥겨운 마을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서대신3동 240-6488)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결정·공시(2018. 1.~6. 합병·분할 등 토지이동된 개별공시지가)
 - 공시일 : 2018. 10. 31.
 - 공시 내용 : 2018. 7. 1.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열람 : 서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 이의 신청
 - 신청 기간 : 2018. 10. 31.~11. 30.
 - 제출자 : 토지 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토지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제출 방법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제출
- 문의 : 토지관리과(240-4754, 4760, 4757) 동 주민센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내

- 운영 기간 : 2018. 10. 1.~12. 31.
- 체납처분 내용
 - ▷ 금융자산(예금·보험 등), 직장인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주(야)간 상시 영치
 - ▷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
 -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공공기록등록(500만 원 이상)
- 납부 방법
 - ▷ 전화납부(ARS 유료) : 1544-1414(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 ▷ 인터넷 납부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etax.busan.go.kr)
 - ▷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문의 : 세무과(240-4241~5)

축하합니다

노인회 구연교 부장 대통령 표창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구연교 경로부장(36·사진)이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구 부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9년여 동안 경로부장을 맡아 각종 프로그램 보급,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등 다양하고 알찬 계획을 수립·추진해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기관평가 장려상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 송도요양병원, 서부경찰서 등 관내 8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각종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보이스피싱이나 교통사고의 피해 예방에 앞장섰으며 부설 노인대학 모범 운영, 매년 게이트볼대회 및 바둑, 장기, 한궁대회 개최 등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다.

(문의 가족행복과 240-4371)

123약국 임무홍 약사 시민상 수상



아미동 123약국 임무홍 약사(65·사진)가 제34회 자랑스러운 시민상(봉사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임 약사는 (사)이웃과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운영위원장 및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초읍무료급식소 운영을 통해 10년간 11만 명의 홀몸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으며, 부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사)부산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 이사를 맡아 매년 이웃돕기 성금과 소외계층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

뿐만 아니라 겨례사랑약사모임의 일원으로 수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남북간 민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라오스 오지마을에 자선병원을 건립해 무상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신발을 지원하는 등 해외 구호사업으로 인류에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 접종 기간 : 2018. 11. 5.(월)~11. 9.(금)
- 접종 장소 : 각 동 주민센터
 - ※ 접종 날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접종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이고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개
- 접종비 : 5천 원/두(동물등록견 3천 원/두)
- 문의 : 경제복지과(240-4504)

SOS복지기동대, '위기가정' 또 구조

부모 방임 3남매에 신속 맞춤 서비스... 3년간 20여 건

서구를 비롯한 관내 10개 기관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직한 서구SOS복지기동대가 위기가정의 구조 신호에 또 한 번 응답했다. 부모의 방임으로 사실상 아동학대 상태에 놓여 있던 4세 이하의 3남매가 복지기동대의 도움으로 내일을 꿈 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은 서구SOS복지기동대의 통합사례회의 모습.

주인공은 지적장애인(여)의 만 4세 이하의 3남매로 첫째아가 지난 3월 꽃샘추위 속에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본 주민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현장조사 결과 엄마는 혼자서는 자녀를 돌보기 힘들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음주와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빠는 지난 여름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외할머니가 사실상의 양육자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함께 살지 않은데다 자활근로를 하고 있어 손자녀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

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3남매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비위생적인 집안과 술병·다리미 등 위험물 속에 하루 종일 방치되고 있었다. 또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해 모두 또래에 비해 체구가 작을 뿐 아니라 각종 피부질환과 화상, 충치 등에 노출돼 이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서구 희망복지지원팀은 곧바로 서부경찰서,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구장애인복지관,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한마음어린이집 등이 참여한 가운데 SOS복지기동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하게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나섰다. 그리고 도움을 원하면서도 외부 개입에 비협조적인 엄마와 외할머니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현재 첫째·둘째아는 어린이집에서 전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영특한 첫째아에게는 지적장애인 엄마를 대신해 가정을 지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원으로 3남매에게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엄마에 대해서도 현재 정신장애검사 결과에 따라 사례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SOS복지기동대는 이처럼 위기가정 발굴 시 즉각 개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복지기동대의 도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가정은 지난 2016년 출범 이래 총 20여 가구에 달한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4331)

알기 쉬운 청탁금지법

Q.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조교가 공직자에 해당하나요?

A. 「고등교육법」에서 '교직원'으로 정하고 있는 조교만 공직자에 해당하며 명예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 시간강사 등은 '교원 외'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시간강사는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2019. 1. 1. 예정)으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면 공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교수가 논문심사를 하고 있는 다른 대학원 학생으로부터 논문심사 중에 도시락세트를 받아도 될까요?

A. 안됩니다. 심사대상자로부터 법정 심사료가 아닌 식사 등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교수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개최하는 사은회에 참석해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가액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모두 종료된 후 사은회가 열린 경우라면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나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와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합산해서 5만 원 이내여야 하고, 식사 3만 원과 선물 5만 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240-4054)

생물테러 의심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 1 의심되는 백색가루 발견 시 건드리지 말고 즉시 경찰(☎112)이나 소방(☎119)에 신고합니다.
- 2 손수건 등을 여러 겹으로 겹쳐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하면서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 3 대피 후에는 즉시 비눗물 샤워로, 신체가 의심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 4 입었던 옷·신발 등은 소독 후 폐기해야 합니다.
- 5 생물테러 증상은 고열·복통·설사·콧물·인후염·피부 발진 및 피부염·안구충혈·무기력증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나 즉시 나타나지 않고 시일을 두고 발생하므로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6 생물테러 징후가 보이면 방송이나 보건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파악합니다.
- 7 인근 지역에 생물테러 경보가 발생하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 및 청결상태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 서구보건소 240-4892)

5년 인증 최우수기관 (유료광고)

자동차정비

최우수 훈련기관 (공공노동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11년 연속 A등급(2006~2016)
- 1차 필기 면제, 2차 실기 자체 시험장
- 도장 전국 최초 개설, 판금 부산 최초 개설
-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직업학교"

모집분야	자격증취득	훈련대상
자동차	정비/판금/도장 기능사 (산업기사)	실업자 누구나

100% 무료 국비모집
교육의 목표는 바로! 취업
수료 후 100% 취업알선

매월 훈련 수당 31만6천원~최대41만6천원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자)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245번길9 부산대학병원, 토성역5번출구
부산자동차직업학교 ☎(051) 255-3533

(유료광고)

부산작명소

작명개명 전문·아기이름 전문·상호야호 전문

이름감정무료 · 개명상담무료

좋은 이름 듣기, 좋은 생각하기, 좋은 희망 갖기

작명전문가/소장 정정혜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일본국 대동문화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졸업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 구 한일은행 근무
- 여성명리학회 학술위원
- 한국작명가협회 정회원
- 현 부산작명소 소장

좋은이름 평생행복

괴정역 3번 출구 앞 ☎051-203-8836

(유료광고)

지/붕/개/량

슬라브옥상, 기와·슬레이트 지붕에 **확실한 방수!! 단열효과!!**

최고의 장점

지긋지긋했던 누수 끝!
귀찮은 페인트칠 끝! 파손 걱정 끝!
간편한 시공, 대부분 하루만에 끝!

칼라강판은 어떤 형태의 지붕도 아름답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수명 반영구적! 칼라강판은 다양한 색상과 모양, 단열효과까지 갖춘 경량지붕재! 고온열처리(특수코팅)로 차후도색이 필요 없습니다.

포항칼라강판 ☎010-5524-0043

국가 암 검진으로 건강 챙기세요!

초기 발견 → 치료 → 완치 확률 UP!



국가 암 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전년도 11월) 부과기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암 검진으로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비의 10%를 부담하면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5대암 검진 프로그램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주기	검사 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 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상하반기)	간초음파 및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대변검사 → 양성 → 대장내시경 검사

※ 대장암 진단 시 대변검사 이력이 있어야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가 지원되며 보건소, 동 주민센터, 검진의료기관에 비치된 채변통에 대변을 받아가면 검사가 편리합니다.
 ※ 조기위암의 경우 수술로 거의 완치가 가능하고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2018년부터 시행)

대상자	지원항목
만 40세 이상 위암 검진 대상자	위내시경 수면 비용
만 50세 이상 1차 대변검사 후 유소견자	대장내시경 수면 비용
만 40세 이상 유방암 검진 유소견자(판정 유보, 암 의심에 한함)	초음파검사 비용

※ 검사 전 비급여 비용 지원이 가능한 '암 검진 의료기관' 인지 확인하고 예약하세요.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암 검진 의료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문의 : 서구보건소 (240-4919, 4920)

건강칼럼 나쁜 것들이 몰려온다, 대사증후군



김 상 수
내분비대사내과 조교수

‘설상가상’, ‘화불단행’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들이 있을까?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게 아니구나!”라며 위로를 받곤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닥쳐온 여러 불행의 원인을 나 자신이 아닌 외부로 돌리고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주위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후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이 높아져서 약을 추가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종종 듣게 된다. 반대로 당뇨병환자들이 혈압, 고지혈증약을 추가로 먹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몫쓸 병들이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엉켜 몰려오는 것은 왜일까?

‘증후군’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이 있을 것이다. 이는 몇 가지 증후가 늘 함께 나타나지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일이 아닌 병적인 증상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사증후군’은 각종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이 되는 것들이 서로 뭉쳐서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것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복부비만,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등이 있다.

이 대사증후군의 중심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숨어서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내로 운반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양화된 식습관과 부족한 활동 등 빼놓아진 생활습관의 변화로 생긴 복부비만이 근본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부른다. 즉, 우리들의 빼놓아진 생활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습관을 잘 교정하였을 때는 먹던 약까지도 끊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여러 개별 병들로 인해 많은 약을 먹고 치료해야 한다고 푸념만 할 때가 아니다. 그 병을 일으킨 근본원인을 잘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는 병인 것 같다.

건강 365일, 서구보건소와 함께!



프로그램명	운영 내용	운영 일시	운영 장소	모집 대상
아미동 마을건강센터	뇌 똑똑! 뇌건강교실	9. 10. ~ 11. 19. 수 14:00~16:00	송이경로당	주민 20명
	몸살림운동	9. 11 ~ 11. 8. 화. 목 14:30~15:30	아미동 마을건강센터	주민 20명
남부민1동 마을건강센터	여왕체조교실	9. 10. ~ 11. 8. 월. 목 14:00~15:00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실	주민 20명
	뇌똑똑! 뇌건강교실	9. 14. ~ 11. 16. 금 14:00~16:00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실	주민 20명
서대신1동 마을건강센터	춤바람 신바람~ 라인댄스교실	9. 11. ~ 11. 9. 화. 목 14:30~15:30	서대신1동 행정복지센터 2층 평생학습실	주민 20명
	스트레스 제로! 맘껏 웃자! 웃음치료	9. 10. ~ 11. 5. 월 10:00~11:00	서대신1동 행정복지센터 2층 평생학습실	주민 20명
뇌졸중 기능 훈련교실	전문 강사와 함께 재활운동	9. 5. ~ 11. 21 수 10:30~11:30	부민노인복지관 4층 취미교실	관내 등록장애인 및 재활운동이 필요한 구민
오감신체발달놀이	다양한 놀이를 통한 아기의 오감신체발달 도모	11. 7. ~ 11. 28. 수 16:00~17:00	보건소 4층 취미교실	18~25개월 아기와 엄마
엄마와 함께하는 아기마사지 교실	마사지를 통한 아기의 발육 도모	11. 8. ~ 11. 29. 목 16:30~17:30	보건소 4층 취미교실	2~8개월 아기와 엄마
구강보건실 촉탁의 구강검진	구강검진, 스케일링, 치아관리 교육	11. 15. 목 09:30~10:30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관내 장애인, 만 65세 이상
아토피보습제 지원	아토피피부염환자 보습제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09:00~18:00	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아토피환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 무료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매주 월~금 09:00~18:00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관내 만 3세 이상 아동~ 초등학교생
무료 불소용액 배부	불소용액 배부	매주 월~금 09:00~18:00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주민 누구나
성인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1회 무료접종	매주 월~금 09:00~11:30/13:00~17:30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만 65세 이상 성인 중 과거 폐렴접종력 없는 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컴퓨터운영	인지재활교육, 단기보호(3시간)	매주 월~금 09:00~12:00	서대신4동 꽃마을작은도서관	치매환자

‘자활’의 꿈, 구청이 도와드립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22개 사업... “일자리가 복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서구가 추진 중인 각종 자활지원 사업들이 활기를 띠면서 취업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자활근로사업 급여가 지난해 대비 최대 8% 인상되고, 자활사업단에 따라 점심식대 단가가 1인당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오르는 등 근로조건이 개선돼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현재 가장 활기를 띠는 것은 서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 중인 7개 자활근로사업단과 5개 자활기업이다.

자활근로사업단은 걸레랑빚자루(건물 상주 청소 관리), 청소용역(학교·기관 청소), 등푸른밥상(고등어요리전문점), I.C.D.I(쇼파백 제작), 푸르미출장세차(세차 지원), 조립사업단(빨래집게 등 조립), 향기나빨래방(운동화·이불 세탁) 등 7개로 월 평균 60여 명이 이곳에서 ‘자활’을 꿈꾸고 있다. 이 가운데 걸레랑빚자루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8천800여만 원, 순이익 5천600여만 원의 성과를 거두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또 블루환경(전문청소용역), 러브인테리어(집수리, 건축자재 도매), 푸르미환경(저수조 및 위생관리용역), 그린존(소독방역, 청소), 희망을 만드는 교실(장애인 통합교육보조원 취업지원) 등 5개 자활기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 직영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인턴도우미

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3개 유형 10개 사업을 추진해 12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매년 자활기금을 투입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기술훈련 및 역량강화, 사기진작 제고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구는 또 참가자들 가운데서도 근로 능력과 욕구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들이 취업 또는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월 평균소득 60만~90만 원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서구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생활지원과 240-4394)

서구자활센터 ‘우수’ 선정

추가운영비 1,540만 원 지원

서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송상철)가 보건복지부가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등 중간점검 결과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지역자활센터는 국·시비 1천540만 원을 추가 운영비로 지원 받았으며 기관운영비와 성과급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생활지원과 240-4394)



사진은 서구새일센터 경력개발 코칭 프로그램 참가자들.

서구새일센터 취업여성 대상

경력개발 코칭 프로그램 운영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0월 9일 센터를 통해 취업한 급식·조리 분야 재직여성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종 맞춤형 경력개발 코칭 프로그램인 ‘스마트한 세계요리 쿠킹클래스’를 운영했다.

(문의 여성새일센터 240-3560)

빠르고 확실한 서구신문 광고

할인 혜택 12개월 30% 6개월 20% 3개월 10%

■ 광고문의 : 문화관광과 ☎240-4074

(유료광고)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제 부산은행에서 가입하세요.
BNK 부산은행
 •충무동지점 : 051)242-3571
 •송도지점 : 051)253-0103
 •서구청영점 : 051)245-0952

일·자·리·정·보

문의 : 서구취업정보센터(www.bsseogu.go.kr) ☎240-6686~8, 6690 fax.240-6689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www.bsseogu.go.kr) ☎240-3561~8 fax.241-4356

사업장명	모집 직종	근무지	모집 인원	학력/경력	근무시간	임금	접수 마감일
천우물산	수산물 영업원	암남동	2명	고졸 이상/무관	8:10~17:10	월급 160만 원 이상	10월 27일까지
(주)두니아	식품주류 영업원	남부민동	2명	고졸 이상/무관	8:00~17:00	연봉 2,000만 원 이상	10월 31일까지
해원종합상사	영업판매직	암남동	1명	무관/무관	8:30~17:30	연봉 2,000만 원 이상	채용시까지
(주)해청수산	사무보조원	암남동	1명	무관/무관	9:00~18:00	월급 160만 원	10월 31일까지
(주)현빈씨푸드	수산물 가공원	암남동	1명	무관/1년 이상	8:00~18:00	월급 180만 원 이상	10월 31일까지
심앤리(주)	무역사무원	암남동	1명	초대졸 이상/3년 이상	9:00~18:00	연봉 2,800만 원 이상	채용시까지
(주)우주태양광	영업기획 사무원	총무동	2명	초대졸 이상/2년 이상	10:00~18:00	연봉 2,400만 원 이상	채용시까지
남성한빛 어린이집	조리사	서대신동	1명	무관/무관	9:00~17:00	월급 158만 원 이상	채용시까지
고주몽	출서빙원	토성동	3명	무관/무관	시간 협의	시급 7,530원 이상	채용시까지
대림에프앤씨	경리사무원	암남동	1명	무관/무관	8:30~17:30	월급 157만 원 이상	채용시까지
대형선망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사무원	남부민동	6명	고졸 이상/무관	9:00~18:00	월급 157만 원 이상	10월 30일까지
(주)아이캔	배송납품 운전원	암남동	1명	고졸 이상/무관	8:30~18:30	연봉 2,400만 원 이상	채용시까지
흥광산업(주)	무역회계 사무원	암남동	1명	무관/무관	8:30~17:30	연봉 2,000만 원 이상	10월 26일까지
기명마린(주)	배송납품 운전원	암남동	1명	고졸 이상/무관	8:30~18:00	월급 200만 원 이상	채용시까지
삼양씨푸드	명란젓갈 가공원	암남동	2명	무관/무관	8:30~17:30	월급 157만 원 이상	채용시까지
(주)부광 F&G	수산물 가공 및 포장	암남동	2명	무관/무관	8:30~18:00	시급 7,530원	채용시까지

※ 게재 중 모집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는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 직종	근무지	모집 인원	학력/경력	근무시간	임금	접수 마감일
* (주)아이비텍 부산지점	PCB 외관 검사원	신평동	5명	무관/무관 (20~45세 까지)	7:00~15:00 15:00~22:00 22:00~07:00 (교대근무)	시급 7,530원	채용시까지
* (주)로열푸드 코리아	조리, 출서빙, 숯불관리	중앙동	각 분야 1명	55세 미만/무관	6:50~15:00 14:50~23:00 22:50~07:00	시급 7,530원	채용시까지
* 아가마지 서부산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하단동	10명	61세 미만/무관	9:00~18:00	월급 170만 원	채용시까지
* 부산 정신병원	조리사, 조리원	장림동	2명	50~60세, 조리사 자격증	하루 3교대 8시간	연봉 2,000만 원	채용시까지
* 고주몽	출서빙	토성동	3명	무관/무관	10:00~16:00 10:00~22:00	시급 7,530원	채용시까지
(주)장수씨푸드	수산물 가공 및 포장	암남동	3명	무관/무관	8:00~17:00	시급 7,530원	채용시까지
* 옥이푸드	수산물 가공원	암남동	1명	무관/무관	8:15~17:30	시급 7,530원	채용시까지
* (주)삼양 씨푸드	밀반찬 제조원	암남동	2명	무관/무관	8:30~17:30	월급 157만3,770원	채용시까지
* (주)온더버브	바리스타	동대신동	1명	청년층 우대/바리스타 자격증	13:00~22:00	월급 200만 원	채용시까지

사업장명	모집 직종	근무지	모집 인원	학력/경력	근무시간 및 시간	임금	접수 마감일
영상물등급 위원회	일반행정직	부산	3명	무관/무관	정규직 9:00~18:00	사내규정에 따름	10월 29일까지
국립해양 박물관	관리직/전문직	부산	각 1명씩	무관/무관	정규직 9:00~18:00	사내규정에 따름	10월 30일까지
한국철도 시설공단	사무/토목/건축/기계/통신	부산	각 1명씩	무관/무관	정규직 9:00~18:00	사내규정에 따름	10월 29일까지